

새 책

▶나는 되어가는 기본이다(이영재 지음)= 시인이 등단 6년 만에 펴낸 첫 시집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색다른 관점과 발랄하면서도 묵직한 시적 사유가 돋보이는 시편을 선보인다. 기존의 익숙한 문법을 무너뜨리며 자주 길을 잃게 하지만 읽다 보면 미로를 걷는 듯해도 무언가 '되어가는 기본'이다. 창비, 9000원.

▶다시 낙타를 타야 한다고?(장성의 글·국민지 그림)= “말로만 떠돌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스웨덴의 17살 여학생인 그레타 툰베리의 이 말이 세계를 뒤흔든 것은 기후변화가 주는 위협 때문이다. 그 엄청난 재앙을 막기 위해 저자는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한다. 학생들이 읽기 편하게 다양한 그림을 실어 그 중요성을 설명한다. 풀빛미디어, 1만3000원.

▶60. 외국어 하기 딱 좋은 나이(아오야미 미나미 지음·양지연 옮김)= 나이가 60에 멕시코로 날아가 스페인어를 배우는 작가의 좌충우돌 공부 분투기다. 젊은 사람 틈에서 수업을 듣고, 타코를 사 먹고, 축제를 즐기며 새로운 세계에서 새 도전을 하는 얘기를 경쾌하게 풀어냈다. 비슷한 나이라면 몇 십 년을 묵혀 둔 욕구가 동할지도 모른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현지 여행을 배우기 위해 떠나는 여행, 결코 꿈은 아니다. 사계절, 1만3500원.

▶오래된 출장(위진록 지음)= 6·25 전쟁, 9·28 서울수복을 방승으로 처음 보도했던 KBS 아나운서 위진록의 에세이 모음집이다. 1950년 11월 한 달 일정으로 도쿄 유엔군총사령부방송에 출장을 갔다가 70년을 일본과 미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 그가 그 세월 안에서 쌓인 인생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을 예리하게 진단한다. 모노폴리, 1만5000원.

▶선사 시대의 타임캡슐 고인돌(박윤규 글·백대승 그림)= 산꼭마루에 사는 푸르메와 제사장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인 고인돌에 담긴 조상의 발자취가 작가의 상상력으로 깨어났다. 두 마을이 하나가 돼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 우리 문화와 역사의 시작, 고인돌에 대한 관심을 일깨운다. 푸른숲주니어, 1만2800원.

▶이름을 알고 싶어(M. B. 고프스타인 지음·이수지 옮김)= 그림책의 노벨상, 칼데콧 명예상을 받은 작가의 그림책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이름을 알고 싶어 길을 떠난 작가는 바닷속에 사는 생명, 돌과 바위의 이름, 육지와 바다, 섬과 호수 등 이 땅의 아름다운 자연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안아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 이름을 따라 부르면 모든 존재의 소중함에 가슴이 뭉클하다. 미디어창비, 1만3000원.

유년기 몸의 기억이 질병을 터뜨린다면

도나 잭슨 나카자와의 ‘멍든 아동기…’

아동기 부정적 경험 연구 역경 넘은 치유 과정까지

당신의 18세 생일 이전에 부모나 가정 내의 다른 성인이 자주 또는 매우 자주 당신에게 욕을 하거나 폄하했는가. 당신을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던졌는가. 당신보다 적어도 5세 이상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한 번이라도 성적으로 당신의 몸을 만지거나 자신의 몸을 만지라고 시킨 적이 있는가... 이 물음에 ‘네’라고 답한 문항의 수가 많다면 이 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과학저널리스트인 도나 잭슨 나카자와가 쓴 ‘멍든 아동기, 평생건강을 결정한다’이다.

표제 그대로 아동기의 경험들이 성인기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이 책은 1990년대에 미국의 두 의사인 빈센트 펠리티와 로버트 앤다에 의해 시작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 연구(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ACE 스터디)에 기반하고 있다. 언어적 폭력과 모욕, 정서적·신체적 방임과 학대, 함께사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정신질환이나 물질중독 등 아동기 트라우마를 포함한 열 가지 유형의 역경을 지표로 삼아 13명의 삶을 쫓았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회복탄력성을 길러주는 어린 시절의 불가피한 작은 난관들과 혼동해선 안된다. 부모가 버럭 화를 냈다가 아이에게 사과하거나 아이가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들은 행복한 아동기에도 많이 나타난다.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이와 달리 두렵고 만성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스트레스 인자다. 그것들이 성인기에 질환을 앓게 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저자는 ACE 연구가 인간의 삶을 더 잘 이해하는 렌즈를 제공한다고 봤다. 우리가 어쩌서 고통에 시달리는지, 자녀를 어떻게 보살



피고 양육하고 멘토링해야 하는지, 우리의 의료 체계에서 질병을 더 잘 예방하고 치료하고 관리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에 노출된 뒤 치유의 과정을 적극 수용하면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어렵사리 얻은 삶의 지혜라는 선물을 인생의 모든 장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인생 최악의 경험들은 삶의 작은 즐거움들을 만끽하는 능력을 높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측면 또한 지니는 건지도 모른다”고 했다. 박다솜 옮김. 모멘토, 1만9000원. 전선희기자

조롱과 혐오... 대학에 비친 우리 사회 민낯

김동수의 르포 ‘... 청소노동자 이야기’

‘모든 노동은 신성하다’는 건 글쟁이들의 주장일까. 그곳에서 만난 풍경들은 옛 조선시대처럼 직업의 상하관계가 확연하다는 걸 일깨웠다. 오죽하면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식에게 숨긴다고 할까. “우리는 이제 사람이 아니야. 여기까지 오면 거의 바둑이거든.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막장 같은 삶이라고 보면 돼.”

서울의 모 대학 청소노동자를 ‘체험’하고 그들의 사연을 르포로 풀어낸 김동수의 ‘유령들’이 나왔다. ‘어느 대학 청소노동자 이야기’란 부제가 달린 이 책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의 문구로 열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청소노동자의 근무 형태, 식사 현실, 휴게실의 역할

등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나 부재하는 유령들로 취급받는 걸 알게 된다.

저자는 대학을 흔히 진리의 전당이라고 부르지만 청소노동자들은 딱히 잘못된 일이 없는 데도 차별과 무시 속에서 살아간다고 짚었다. 천대 받는 육체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열사의 눈빛을 온몸으로 떠안은 감정노동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쓰레기를 치우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청소노동자에게 “냄새가 심하면 알아서 걸어 올라가든가”라고 막말하는 대학생의 모습은 그들이 겪는 일상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인간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민주노조를 결성한 청소노동자들이 탄압받는 장면에선 대학의 민낯을 본다. 임직원들이 사학 비



리를 저지른 재단 소유주에게겐 한없이 머리를 조아리지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향해선 조롱과 혐오를 일삼는다고 했다.

‘유령들’은 대학과 용역업체의 끈질긴 방해 끝에 민주노조가 단체협약 교섭권을 잃는 걸로 끝을 맺는다. 패배의 기록이지만 마냥 암울하지는 않다. 청소 노동을 하는 자신들이 있는 한 현실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낙관을 전한다. 샴샨, 1만4000원. 전선희기자

이 책 이방인이 담은 ‘추억의 기록’

50년 전 성산포·서귀포 장날 풍경



‘추억의 기록’에 담긴 성산포, 한라산과 오름이 보이는 이 풍경을 두고 저자는 ‘때론지 않은 절경’으로 불렀다.



50년 전 성산포 풍경은 어땠을까. 한국인과 결혼한 스위스 여성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한국에 살면서 촬영한 사진들을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다. 마르티나 도이힐러의 ‘추억의 기록-50년 전 내가 만난 한국, 사진 속 순간들’이다.

저자는 하버드대 동아시아 언어문학학과에서 19세기 말 한국 외교사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67~69년, 1973~75년 서울대 규장각에서 연구했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런던대 아시아·아프리카대학 교수를 지냈고 지금은 런던대 명예교수로 있다.

‘추억의 기록’에는 한국에서 지내며 찍은 3000여 장 중에서 골라낸 사진들이 묶였다. 시골 풍경, 마을의 여성들, 안락고사, 양반 가옥, 동제, 이문동의 만신, 변화하는 경주, 모험적인 섬 여행 등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닿으며 만난 장면에 글을 더했다.

제주 답사는 1968년 5월에 이루어졌다. 서울대 학생들과 동행해 목포에서 뱃길을 이용해 제주로 향한 길이었다. 그들이 밤새 배를 타고 도착한 제주에서 맨 먼저 한 일은 한라산 등정이었다. 한라산엔 진달래가 한창 피어났고 7시간 만에 백록담에 올랐다. 정상 부근의 ‘작은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제주시로 돌아온 일행은 며칠 동안 버스를 타고 섬을 돌아봤다.

그가 기록한 동쪽 해안마을 성산포의 초가 너머로 모습을 드러낸 한라산과 오름은 수십년 동안 바뀐 섬의 지형을 단박에 보여준다. 서귀포의 생기 넘치는 시장, 돌담을 레깅스와 납작한 지붕의 초가, 어촌 풍경과 해녀들은 제주 의 정체성을 새삼 새기게 만든다. 이를 포함 제주 풍경 10여 장을 소개한 저자는 당시 일행들이 해녀들을 카메라에 담으려 하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가 여성임을 확인한 뒤에야 해녀들은 사진 찍는 걸 허용했다. 남자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했다. 서울셀렉션, 1만85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WINIX

공기청정기

타워프라임

APRM833-JWK (26평)

~~599,000원~~
500,000원

타워프라임을 2월까지 구매한 고객에게
공청기 필터1개 증정행사

타워X

ATGM500-JWK (15평)

~~329,000원~~
265,000원

WINIX novita (구.제민일보 맞은편)

신강로터리 | 빙스 | 요양병원 |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 신제주로터리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